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यो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4).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받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언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대속하실 그는 어린양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겉옷을 벗어 _____ 1과 길에 펴라



배울 말씀

마태복음 21장 1-11절
(참고 : 누가복음 19장 28-44절),
스가랴 9장 9절

읽을 말씀

마태복음 21장 1-11절

외울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마 21:4-5).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승리의 메시아이다.

포인트

승리의 구원자를 찬양하라!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프랑스 에두알 개신문 사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시작된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분이 왕이시며 우리의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예언하였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9).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가까운 북서쪽 마을, 벳바게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시오, ‘왕’이심을 알게 하는 권능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즐겁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이다. 그들이 겹옷을 길 위에 깔 것은 귀한 사람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식의 표현이다(왕하 9:13).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 나뭇가 가진 상징인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보여주는 행위였다.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시편 118편 25-26절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용납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하시며 당연한 일인 것을 보여주었다(눅 19:39-40). 돌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보여준다.

1과는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무리들은 성경의 예언 성취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예언 성취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오래전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청소년들은 1과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알게 하자. 그들의 분명한 고백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자.

핵심 단어 호산나

‘호산나’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이다. 어린이 ‘호쉬아나’(시 118:25)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의미이다. 이것의 아람어 표기인 ‘포산나’는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름

여러분, 이 사진 속 문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 사진을 보여주며, 대답을 듣는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투알 개선문’(Arc de Triomphe)이에요. 세계 각지에는 에투알 개선문과 같은 목적으로 세운 ‘개선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개선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교재 ‘이름’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개선문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개선문을 통과하는 왕처럼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들음



여러분 교재 ‘들음’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변 백성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세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2,000년 전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환영했어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 두 명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마 21:2-3).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안장 대신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깔고 예수님을 앉으시게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슥 9:9).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환영할 때 어떻게 환영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백성들은 자기 겂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백성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 21:9).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호산나’는 어떤 뜻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우리를 구원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몰랐어요. 단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승리하신 왕으로서 찬양받아야 한다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 빠뜨려 죽게 하려는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DEEP Q

1.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슥 9:9)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2.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환영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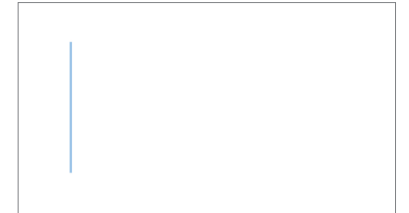
저를 따라 해주세요. “승리의 구원자를 찬양하라!”



예수님은 승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께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 ‘결음’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각자가 적은 대로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올바른 태도를 보여드리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그동안 승리하신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본 후에 나누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내 삶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적고 나누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신 구원자를 찬양해야 해요. 그것이 승리하신 구원자를 향한 올바른 태도예요. 누구도 승리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승